

식물요법(Phytotherapy)

하리질환

저자 황완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20세기 중반 급·만성 하리질환의 치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질이나 티푸스와 같은 감염증 질환에 옛날의 지사제와는 전혀 다른 sulfonamide와 항생제가 개발되어 치료제로 등장하여 혁신적인 치료를 함으로서 지금까지의 지사제가 무용화되어 버렸다.

그러나 tetracycline, aureomycin 등의 경구용 항생제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상적인 장내세균까지도 죽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하리질환이라 하더라도 항생물질 투여는 불가피하게 장내 감염증질환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전적인 천연물 지사제로 치료할 수 있는 하리질환은 많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등의 감염증 또는 대장균의 장성 자가중독증의 형태로써 나타나는 여름철 설사나 특히 더운 여름철 기후가 급변하여 차가워짐으로서 나타나는 하리질환 등에 적용한다.

키워드

양지꽃, 위릉채, 들쭉나무, bile berry, 짚신나물, 용아초

하리질환의 경우 식사와는 무관하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며 이것이 풍토병화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산중의 학교 또는 바닷가의 학교 등에서 이런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등교직전 평상시 먹던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먹게 되면 식사 후 설사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무더운 여름의 설사에는 첫째도 둘째도 식물성 지사제가 가장 효과가 있으며, 또한 지극히 평범한 하리인 발효성 소화불량과 급성이 악화된 것, 장년기에 만성이 된 적리가 때때로 악화되었을 때도 항생물질 등의 화학요법제가 아닌 식물성 지사제가 매우 효과적이다.

식물성 지사제에는 주로 탄닌이 많이 함유된 생약이 주로 이용되며 양지꽃류(*Potentilla chinensis*), 들쭉나무류(*Vaccinium myrtillus*) 및 짚신나물류(*Agrimonia pilosa*) 등이 많이 이용된다

1. 양지꽃류(*Potentilla tormentilla*, *P. chinensis*)



Potentilla는 유라시아대륙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어디서든지 잘 자라며 주로 습지 등의 평야에서는

소형으로 하나의 근경에서 다수의 뿌리가 나오고 꽃은 작으나 나무 밑에서 자라는 것은 대형이 되며 근경으로부터 나오는 뿌리의 수는 적고 꽃과 잎은 굉장히 크고 예쁘다.

우리나라에서는 위릉채(委陵菜) *Potentillae herba*라 하여 약용부위를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사용하나 유럽에서는 *Tomentillae rhizoma*라 하여 근경만을 사용한다. 근경의 횡단면은 바로 갈변하며 탄닌성 생약으로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탄닌 자원생약이다. 탄닌의 함유량이 15-20%에 달하며 외국에서 수입되는 아선약보다 10%이상 탄닌 양이 높으며 주성분은 수용성의 탄닌인 tomentillic acid 외에 가수분해형의 배당체 tomentill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주 약효는 탄닌에 의한 효능이며 특히 tomentillic acid는 적색 색소로서 박테리아와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 박테리아의 성장을 저해한다. 양지꽃은 넓게 2가지의 응용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내복하면 각종 설사를 막아주며 외용하면 구강과 인후 등의 점막질환을 치료한다.

지사제로서 양지꽃은 급, 만성장염에 사용되며 주로 여름의 설사 또는 세균성의 하리 등에 응용되며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급성 및 아급성의 장염과 대장염이며 만성 대장염에는 수렴제의 효과가 적다.

제형으로 원 생약의 차, 틱크제, 또는 유동 엑스 그리고 캐모마일 유동 엑스가 혼합된 제품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다. 또한 포텐틸라 틱크와 창포 틱크가 1:1로 혼합된 제품도 시판되고 있어 정도에 따라 가감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들쭉나무류 (*Vaccinium myrtillus*, *Vaccinium uliginosum*, bile berry)



서양 들쭉나무

백두산 들쭉나무

유럽 핀란드를 중심으로 bile berry를 재배하며 우리나라 백두산 등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것은 들쭉나무라 한다. 잎과 성숙한 열매인 액과를 사용한다.

과실에는 7%의 탄닌 및 청색 색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색소는 anillin 그룹의 myrtillin으로 박테리아의 세포와 친화성을 가지며 하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유럽에서는 들쭉나무의 건조한 열매의 농후한 전제를 지사제로 사용하며, 과즙을 푸딩, 젤리, 오트밀의 형태로 만들어서 약국에서 시판하며 주로 여름철 설사에 사용된다.

임상적 효능을 보면 열매는 수렴, 소독, 흡수 등의 3가지 작용이 있으며 대변은 산성이 되고 청색의 색소는 장점막의 상피에 침입하여 고착화하여 회흑색의 방어피막을 형성하여 각종 기계적인 자극을 차단하여 염증성의 분비를 저하시킨다. 또한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의 각종 하리증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며, 수렴소독작용이 있어 구강의 염증성 질환에도 전제로 만들어 세정제로 이용한다.

그러나 신선한 과실 즉 초가을 과실을 먹으면 전혀 다른 효능을 나타내는데 잼 및 우유와 혼합하여 먹으면 지사제가 아닌 사하성의 효과가 나타내는데 이는 탄닌의 양이 적고 cellulose 및 종자에 의해 물리적인 하제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형으로는 간단하게 다제로서 이용하며 티스푼 3배에 1/2L의 물을 가하여 10분간 끓인 후 여과하여 수회 따뜻하게 복용한다.

한편 최근에는 동속식물로 인기가 많은 블루베리(blueberry)가 우리나라 및 북미에서 많이 재배되며 열매를 지사제로 사용할 수 있다.

3. 짚신나물류(*Agrimonia pilosa*, *A. eupatoria*)



*Agrimonia*는 전술한 양지꽃과 같이 유라시아 대륙에 많이 분포하며 유럽에서는 불가리아와 헝가리산을 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 역시 전국의 들에 많이 자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용아초(龍牙草) *Agrimonia herba*라 하여 꽃이 필 때 지상부를 사용한다. 지상부에는 탄닌이 4-10% 함유되어 있으며 카테킨 유도체와 갈로탄닌이 주성분이다.

주 약효는 양지꽃과 같이 탄닌에 의한 효능이며 수렴제로서 구강과 인후의 염증질환에 사용하며 설사와 카타르성 질환에 사용한다. 민간에서 방광염과 바이러스 감염질환,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g 정도 세절한 것을 150mL 물에 짧게 끓이거나 끓는 물을 넣어 10분 정도 방치한 후 여과하여 가글하거나 1일 2-3회 1컵씩 복용한다. 또한 용아초 추출물이 함유된 연고, 정제, 틱크제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대부분 방광의 염증과 설사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약사 Point**1. 양지꽃류**

: 원생약의 근경분말 차, 틴크제, 또는 유동 엑스 그리고 캐모마일 유동 엑스가 혼합된 제품이 시중에 시판되고 있다. 또한 포텐틸라 틴크와 창포 틴크가 1:1로 혼합된 제품도 시판되고 있어 설사의 정도에 따라 가감을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2. 들쭉나무류

: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의 각종 설사증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며 수렴소독제로서 구강의 염증성 질환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간단하게 다제로서 이용하며 티스푼 3배에 1/2L의 물을 가하여 10분간 끓인 후 여과하여 수회 따뜻하게 복용한다.

3. 짚신나물류

: 세절한 것 1.5g정도를 150mL 물에 짧게 끓이거나 끓는 물을 넣어 10분 정도 방치한 후 여과하여 가글하거나 1일 2-3회 1컵씩 복용한다. 또한 용아초 추출물이 함유된 연고, 정제, 틴크제 등이 개발되어 있으며 대부분 방광의 염증과 설사를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 참고문헌 ■

Rudolf Fritz Weib, 1991, Lehrbuch der Phytotherapie, Hippokrates Verlag GmbH

